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9. 18.(금)

“워킹홀리데이 가기 전, 이걸 꼭 알고 가세요”...경험자 17명이 전한 현지 생활 ‘꿀팁’

- 9개 국가·지역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17명, 5개월간 ‘워홀프렌즈 15기’로 활동
- 카드뉴스·숏폼 제작부터 설명회·멘토링까지...예비 참가자에게 실용 정보 전달

- 워킹홀리데이를 직접 경험한 청년들이 예비 참가자들에게 출국 준비부터 현지 생활까지 자신이 겪으며 얻은 비법을 전했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18일 외교부 모과마루에서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 ‘워홀프렌즈 15기’ 수료식을 열고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.
- ‘워홀프렌즈’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청년들이 예비 참가자에게 출국 준비와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.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5기를 맞았다.
- 15기에는 호주·캐나다·일본·영국·아일랜드·체코 등 9개 국가·지역에서 6개월 이상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청년 17명이 참여했다.
- 이들은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별 준비 사항과 현지 생활정보를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으로 제작했다. 설명회에서는 예비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, 멘토링을 통해 개인별 관심사에도 답했다.
- 5개월 동안 콘텐츠 제작, 설명회, 멘토링 등 모두 478건의 활동을 진행했다.

-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위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누리집(whic.mofa.go.kr), 네이버카페(cafe.naver.com/woholfriends), 유튜브(youtube.com/@whickorea), 인스타그램(instagram.com/whic.kr), 페이스북(facebook.com/whic.kr)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이날 수료식에서는 15기 활동을 돌아보고 참가자 1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. 우수한 활동을 펼친 7명에게는 재외동포청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다.
- 최우수상을 받은 정한결 서포터스는 “아일랜드 위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했다”며 “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재외동포청 조지이 동포지원제도과장은 “워홀프렌즈가 위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, 해외 생활을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워홀프렌즈의 참여 국가·지역을 확대하고, 예비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과 장 조지이 (032-585-3179)
		담당자	주무관 윤기호 (032-585-3184)